

보도시점 2023. 12. 5.(화) 09:00 배포 2023. 12. 5.(화) 09:00

‘23.11월 소비자물가는 3.3% 상승
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.0%로 둔화흐름 지속

<‘23.11월 주요 물가 지표>

(전년동월비, %)	총지수	식료품·에너지제외	농산물·석유류제외	생활물가지수	신선식품지수
23.10월 → 11월	3.8 → 3.3	3.2 → 3.0	3.6 → 3.3	4.6 → 4.0	12.1 → 12.7

‘23.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.3%로 10월(3.8%)보다 0.5%p 감소하였다. 11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농축수산물(전월비 △4.9%, 전년동월비 6.6%)과 석유류(전월비△3.5%, 전년동월비 △5.1%) 가격이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고 내구재 가격 상승률도 둔화(전월비 △0.3, 전년동월비 2.5%)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. 농산물·석유류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4.0% 상승(10월 4.6%)하였다.

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(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)는 전년동월비 3.0%(10월 3.2%)로 전월대비 0.2%p 하락하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, 미국(10월4.0%), EU(10월4.8%), 영국(10월5.6%) 등 주요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. 근원물가 안정세 및 최근 국제유가 등 고려시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, 겨울철 기상여건,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.

정부는 물가 안정기조의 조기 안착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중심으로 가격·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불안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보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 사무관 성지현 (jeeeeee629@korea.kr)

별첨 1

'23.11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

1. 주요 내용

1 [소비자물가] 전년동월비 3.3% 상승(10월 3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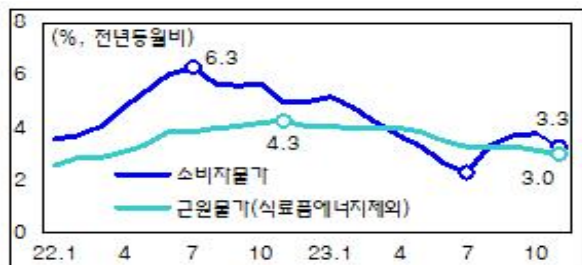
(%)	'22.9	10	11	12	'23.1	2	3	4	5	6	7	8	9	10	11
전년동월비	5.6	5.7	5.0	5.0	5.2	4.8	4.2	3.7	3.3	2.7	2.3	3.4	3.7	3.8	3.3
전월비	0.3	0.3	△0.1	0.2	0.8	0.3	0.2	0.2	0.3	0.0	0.1	1.0	0.6	0.3	△0.6

- 농축수산물 가격이 수급여건 개선으로 전월보다 큰 폭 하락 (△4.9%), 작년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로는 소폭 둔화(7.3→6.6%)
-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안정세가 반영되면서 하락폭 확대
 - 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: ('23.6)74.8 (7)80.5 (8)86.5 (9)93.0 (10)89.8 (11)83.5 (12.4)81.3
 - * 석유류 물가(%, 전년비): ('23.1/4)△3.5 (2/4)△19.9 (7)△25.9 (8)△11.0 (9)△4.9 (10)△1.3 (11)△5.1
- 수입차 할인 등 영향으로 내구재 물가도 상승률 둔화
 - * 내구재 물가(%, 전년비): ('23.1/4)2.8 (2/4)3.2 (7)3.0 (8)3.6 (9)3.1 (10)3.3 (11)2.5
- 외식 및 외식제외 서비스 상승률은 10월 수준 유지
 - * 외 식(%): <전년비> ('23.1)7.7 (2)7.5 (3)7.4 (4)7.6 (5)6.9 (6)6.3 (7)5.9 (8)5.3 (9)4.9 (10)4.8 (11)4.8
 - 외식外(%): <전년비> ('23.1)4.5 (2)4.4 (3)4.6 (4)5.0 (5)4.7 (6)4.1 (7)3.8 (8)3.6 (9)3.6 (10)3.7 (11)3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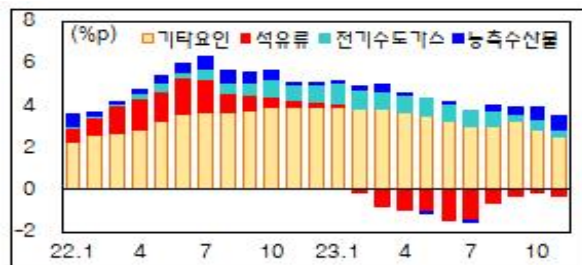
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

품목별 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내구재	전기가스 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 제외
'23.10월											
전년동월비	3.8	7.3	3.5	△1.3	3.3	9.6	0.0	2.2	4.1	4.8	3.7
(기여도, %p)		0.6	1.2	△0.1	0.3	0.4	0.0	0.3	1.3	0.6	0.7
'23.11월											
전년동월비	3.3	6.6	2.4	△5.1	2.5	9.6	0.0	2.2	4.2	4.8	3.7
(기여도, %p)		0.6	0.9	△0.2	0.2	0.4	△0.0	0.3	1.3	0.6	0.7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

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



② [근원물가] 전년동월비 3.0% 상승(10월 3.2%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근원물가로서,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,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2.6	7	8	9	10	11	12	'23.1	2	3	4	5	6	7	8	9	10	11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3.9	3.9	4.0	4.1	4.2	4.3	4.1	4.1	4.0	4.0	4.0	3.9	3.5	3.3	3.3	3.3	3.2	3.0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4.4	4.5	4.4	4.5	4.8	4.8	4.8	5.0	4.8	4.8	4.6	4.3	4.1	3.9	3.9	3.8	3.6	3.3

③ [생활물가] 농산물·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4.0% 상승(10월 4.6%)

*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2.6	7	8	9	10	11	12	'23.1	2	3	4	5	6	7	8	9	10	11
생활물가지수	7.4	7.9	6.8	6.5	6.5	5.5	5.7	6.1	5.5	4.4	3.7	3.2	2.3	1.8	3.9	4.4	4.6	4.0

④ [신선식품] 전월대비 큰 폭 하락(△7.5%)했으나, 기저효과('22.11월 전월비△8.0%)로 인해 전년동월비 12.7% 상승(10월 12.1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일 등 계절·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

** 신선식품지수(전년동월비, % 10→11월): (신선과일)26.2→24.6 (신선채소)5.4→9.5 (신선어개)2.8→1.4
(전 월 비, % 10→11월): (신선과일)△0.6→△9.1 (신선채소)△29→△104 (신선어개)1.5→0.8

(전년동월비, %)	'22.6	7	8	9	10	11	12	'23.1	2	3	4	5	6	7	8	9	10	11
신선식품지수	5.4	13.0	14.9	12.8	11.4	0.8	1.1	2.4	3.6	7.3	3.1	3.5	3.7	1.3	5.6	6.4	12.1	12.7

2. 평가 및 대응

□ [평가] 11월 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고 수입차 등 내구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3.3% 상승

○ 식료품·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들을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.0%로 둔화 흐름 지속(10월 3.2%)

▪ 특히, 미국(^{10월}4.0%), 영국(^{10월}5.6%)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

< (참고) 주요국 근원물가 >

	한국 ^{11월}	미국 ^{10월}	영국 ^{10월}	독일 ^{10월}	OECD ^{10월}	EU ^{10월}
근원물가(%)	3.0	4.0	5.6	4.2	6.5	4.8

□ [대응]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중심으로 가격·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불안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 지속